

보도시점 : 2024. 3. 25.(월) 11:00 이후(3. 26.(화) 조건) / 배포 : 2024. 3. 25.(월)

'직선·지하화' 동탄~기흥동탄 나들목, 3월 28일 05시 개통

- 국내 첫 도심 고속도로 지하화... 상부 공간 활용 공원 조성·도심 단절 해소

- 경부고속도로 동탄JCT~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·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,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한준)는 '17년 3월부터 '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,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~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·지하화 공사를 마쳤다.
 - 경부고속도로 직선·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(곡선→직선, 4.7km)하여 주행성을 높이고,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(경부동탄터널, 1.2km)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특히,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*을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.
* 자동전동 제연시설 분무시설 고온(1,350도) 내화보드, 촘촘한 파란연결통로(70m간격 총 12개) 설치 등
- 향후,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동서연결도로(6개소)와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.
 - 터널 상부 공간에 동탄1, 2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 간 연결도로*(6개소)를 추가 개통하여 동탄역 접근성을 높이고,
* (주간선) 2개 도로, '24.6월 개통, (보조간선) 4개 도로, '24.12월 개통 예정
 - 동탄역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도심공원*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.
* (방향) 한국적 공간구조의 섬세함과 풍부함을 담은 동탄의 빛나는 공원 (면적) 89,729m²(축구장 12배 규모), (공사기간) '24.5.~'26.11.(30개월)

-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“본 사업은 교통시설과 도시공간의 조화로 도로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고, 지역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”이라며,
- “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일	(044-201-3889)
<협조>	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	(044-201-3434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민	(044-201-3455)
	한국도로공사 건설처	책임자	팀장	박성화	(054-811-3050)
		담당자	차장	김아름	(054-811-3051)
	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	책임자	팀장	양시전	(031-379-6828)
		담당자	차장	박진규	(031-379-687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